

축산자조금연합 축산물·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 발대식



▲ (좌부터) 최규혁 사무총장(한국양봉협회), 이강현 전무(한국오리협회), 안영기 위원장(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이홍재 위원장(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기수 대표(농협중앙회축산경제), 이강우 회장(전국한우협회), 강성기 위원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손정철 위원장(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최현주 위원장(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지난 8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축산자조금연합 이름으로 '축산물 및 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의 추진배경과 발대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내 축산업은 생산액이 16조원에 달하고 고용부문의 경우도 종사자 수가 3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특히 국내 축산물은 대한민국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영양학적 가치까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육식이 해롭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축산업이 거론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내 대표 9개 축산자조금이 연합하여 축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육류와 채소의 균형 잡힌 식습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자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 우리 축산'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자조금연합 이병규 위원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 '축산물 및 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의 성공적 출발을 다짐하며, 9개 축종 위원장들과 단체장 및 농협축산경제 대표가 축산농부로 변신한 아이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축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축산농부로 변신한 아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인지로 인해 생기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축산물의 영양학적 가치 및 국민 경제의 초석으로서 축산업의 역할을 적극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캠페인을 통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대한비만학회 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장기, 면역기능 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라며 "동물성 단백질을 멀리할 경우 영양불균형이 초래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축산자조금연합은 본 발대식을 시작으로 축산물·축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홍보 활동 뿐 아니라 단계별로 어린이 대상 교재 개발, 심포지엄과 강연 등을 통해 축산에 대한 바른 정보와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